

## 노회찬 아카이브 기초 연구

A Pre-study on Roh Hoe-chan Archives

주현미(Ju, Hyun Mi)\*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선행연구
2. 노회찬 기록의 현황과 특징
  - 1) 수집 및 관리 현황
  - 2) 영역별 특징
3. 노회찬 아카이브 운영의 방향과 과제
  - 1) 기록물 정리와 디지털화
  - 2) 분류체계 구축
  - 3)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4. 결론

\* (재)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 국장, 노회찬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archivist.j@kakao.com).

■ 투고일: 2021년 03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4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9일.

■ 기록학연구 68, 243-279,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243>

## 〈초록〉

고(故) 노회찬 의원은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노동 운동, 노동자 정치조직화 운동,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매진하였으며, 17,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록이고, 진보정당의 기록이며 고뇌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기록이다. 또 실향민의 아들로써, 유신시기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로, 그러면서도 첼로를 켜던 문화적 소양의 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노회찬이 남긴 기록의 수집, 관리 현황과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기록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연구이다.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카이브를 구조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 운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 노회찬, 노회찬 아카이브, 정치사, 노동운동사, 생애사**

## 〈Abstract〉

Rep. Roh Hoe-chan is a representative politician in Korean progressive politics. From the labor movement to the workers' political organization movement,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movement to build a progressive party. As a member of the 17th,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he carried out legislative activities. The record he left is the record of the political power of workers, the record of the progressive party, and the record of a politician who suffers and practices. Also, as the son of a displaced person, as a student activist suffering from the restoration period, it is also a record of a human being of cultural literacy who played the cello. Archivist's basic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archive management by structuring the archive and presenting various access points to various

users, allowing more diverse research and use in the future.

**Keywords** : Roh Hoe-Chan, Roh Hoe-Chan Archives, Political History,  
Labor Movement History, Life History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고(故)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사의 중요한 인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합법 진보정당운동의 출발점이 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진보정당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창당, 진보정당 최초 3선 성공 등 그 행보 자체가 진보정당의 역사가 되는 인물이다.<sup>1)</sup>

1956년 부산에서 실향민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나 청소년기에 유신(1972년)을 경험하며 고교시절 학내 학생운동을 조직했고, 5.18 민주항쟁을 경험하며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민주사회 실현을 꿈꾸며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에 투신, 노동운동 조직 활동을 했다. 진보정당정치사에서 중요한 단체인 인민노련을 조직해 분산되어 있던 현장노동자들을 조직해 활동하던 중 수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다. 인민노련은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준위(1991.12.15.)’를 거쳐 ‘한국노동당 창준위(1992.1.19.)’,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와 ‘진보정치연합’을 거쳐 1997년 국민승리21과 2000년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합법 진보정당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삶의 기록은 5, 60년대 부산의 생활모습, 유신시기의 상

---

1) 논문의 서술을 위해 이하 ‘노회찬’으로 쓴다.

황, 민주화운동 시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기록이다. 한 개인이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것은 시대를 읽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연구해야 한다. 노회찬 기록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찾아내고 개인 생애사 연구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노회찬 아카이브의 초기 단계에서 노회찬 기록이 가지고 있는 생애사적, 노동운동사적, 정치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회찬 기록의 내용과 그 가치를 포함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기록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아카이브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장 기록 분석과 이에 관련한 분야의 논문 및 저서 등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의 의미를 발견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노회찬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앞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 서비스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회찬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록 분석 대상은 노회찬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과 온라인 매체, 도서 등 외부 매체에 실려 있는 노회찬의 인터뷰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연구는 기록학, 정치(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특히 기록학 분야에서는 개인기록 또는 개인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을 분석, 적용하고자 했고, 정치사 영역에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사 중심의 주요 사건 흐름과 사회적 의미 등을 참고하였다.

다만 노회찬 아카이브는 구축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록 목록 정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이에 따라 현재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록의 분량과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노회찬 아카이브와 같이 초반에 대량으로 입수되고 이후 수집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뉴스크립트 성격의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에서 기록물 정리가 끝난 후 분류체계나 서비스체계 등을 잡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문과 같이 기록 분석과 분류체계(안) 도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향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보완,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회찬 아카이브는 유동적이고 유연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점이 다양해질 수 있고 이를 분류체계, 콘텐츠 개발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 초기 단계에서 생애사 분석과 노동운동·정치사적 분석이라는 두 개의 틀로 아카이브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본 연구와 노회찬 아카이브 소장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3) 선행연구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기록학 분야와 노동·정치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노회찬을 한 ‘개인’으로서 삶의 기록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개인기록에 대한 연구의 선행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개인 기록의 의미와 특징

을 밝히고 그 특징에 따른 관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김진용(2013), 최인혁(2014), 오명진(2017) 등이 있다. 김진용은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고, 최인혁은 생애사 연구 관점에서 개인기록화를 연구하였다. 오명진은 개인 기록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노회찬의 삶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앞서 이연창(2007)의 인물기록관에 관한 연구에서 정의한 “특정 인물에 대한 모든 유무형 지적 자산을 수집하고, 해당인물 및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며 대중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기록관”이라는 정의는 노회찬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개인’이지만 직업, 직무 등의 측면에서의 연구로는 김백봉 아카이브 연구(김운영, 안병헌, 2012), 김천홍 자료 연구(오정은, 2017) 등 예술가의 자료현황과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 아카이브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이 있고 특정 인물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로는 부산대 초대총장 윤인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박선희(2013) 등이 있다.

노회찬 기록의 내용과 구조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치인의 기록에 대한 연구들이 시사점을 준다.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로는 한은정(2007), 김남희(2016) 등의 연구가 있고, 특히 한은정, 김남희의 연구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활동기록의 분류의 한 방법을 시사했다.

유경순(2011; 2015a; 2015b; 2017)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과정과 그 추동 주체인 학생운동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노회찬의 생애 중에서 노동운동가로서의 활동시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조현연(2009)의 연구는 노회찬의 진보정당 운동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노회찬 기록의 현황과 특징

### 1) 수집 및 관리 현황

노회찬의 기록은 현재 재단법인 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에서 관리중이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서거 이후 2018년 9월 ‘노회찬재단 추진모임’을 결성하였고 2019년 1월 24일 공식 창립되었다. 재단 창립과 함께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노회찬 국회의원실과 자택, 마들연구소 등에 있던 노회찬의 기록을 이관 받았고, 최초 이관 이후 2020년 8월 자택에 있던 개인기록 등을 2차로 이관 받았으며 10월에는 자택에 있던 컴퓨터를 이관 받아 복원한 상태이다. 초기 기록물은 주로 유족과 노회찬 의원실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했다. 입수 당시 정확한 기록물의 수량,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문서로 남겨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당시는 서거 직후라 유가족도 기록물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재단도 법인 설립 준비 단계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기록은 모든 권한이 유가족에게 위임되므로 유가족과 아카이브 양측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향후 개인 또는 외부 단체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할 경우를 고려해 수집정책과 함께 기증협약서 등의 절차와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물 보유 현황은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현재 수량이 파악된 기록물은 도서간행물류 약 5,000여권, 행정박물류 약 487점, 시청각류는 VHS, DV 비디오테이프 등 비전자매체 기록물 165개, CD·DVD 수록된 기록물 108개, 문서류 중 비전자기록물이 1,069개철 등이다. 문서, 사진,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은 약 4TB 정도로 파일객체는 약 100만개 정도이다.

〈표 1〉 노회찬 아카이브 기록 보유현황

매체	유형	수량	비고
비전자기록물	도서간행물류	도서류 4,000여권	1960년대부터 소장한 개인소장도서
		간행물 및 제본류 1,000여권	인민노련 시기부터 민주노동당까지 기관지, 보고서 등
	문서류	의정활동기록물철 1,061개 미분류 기록물건 다수	의정활동 중 생산된 회의록, 보도자료, 참고자료, 국정감사질의서 등 문서류와 1989년 수감당시 공소장, 판결문 등
	사진류	인화사진 50여건	유년기~청년기까지의 인화사진 중 일부 보관
	시청각류	VHS 비디오테이프 42개 betaCAM 테이프 3개 video8 테이프 2개 DV 테이프 118개	선거운동, 강연영상, TV토론 영상 포함
	박물류	그림 12점 기념품 38점 상장 및 상패 61점 유품 및 개인 소장품 105점 추모서한 245점 등	1주기 추모전시회에 출품된 추모작품 신발, 핸드폰, 노트북 등
	신문류	신문스크랩 106건 민주노동당 주간지 84건 등	1970~80년대 기사 스크랩. 1973년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부터 유신, 선거 등과 관련한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의 신문기사 포함
전자기록물	CD, DVD	영상, 음성류 108개	선거운동 영상, 선거유세 음악, 의정 보고영상 등
	외장하드 1	2.11TB, 파일 662,572개	노회찬의원실로부터 이관됨
	외장하드 2	1.52TB 파일 368,388개	노회찬의원실로부터 이관됨
	외장하드 3	270GB, 파일 80,728개	지택 소장 컴퓨터 복원파일
	웹기록	블로그, SNS	노회찬의 공감로그, 트위터 등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외 이전 사이트인 난중넷의 경우 백업파일로 남아있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전자기록물의 정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전체 기록물의 수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사진과 영상의 경우 생산일자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상세연보의 일자별 주요 일정과 비교 대조하여 정리하고 선별,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실물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디지털작업과 내용 기술(스크립트)이 완료되어 보관본으로 변환한 상태인데 용량이 크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

직 등록은 되어있지 않다.

실물기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정활동기록물은 노회찬 국회의원실(통상 노회찬의원실)에서 이관된 것으로 17대, 19대, 20대(2004년~2018년)에 걸쳐 생산, 수집된 것인데 기록물철의 개수만 해도 1,061개이고 분철되지 않고 상자 등에 들어있는 기록물건도 상당히 많다. 이 기록물들은 일정한 공간에서 관리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자택이나 마들연구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기수 의정활동기록물과 합쳐져 보관된 기록물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시기의 기록물들이 섞여있기도 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물이라고 해도 고유한 정당활동 기록물과도 혼재되어 있어, 기록물건 정리, 기술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그 수량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사진은 의정활동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서고의 일부 모습이다.

〈그림 1〉 의정활동기록물 보존 현장 사진



노회찬 기록의 관리부서인 기록연구실은 아카이브를 총괄하는 특임 이사 1인, 국장1인의 상근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기록물 정리인력으로 약 1.5인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청년인턴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단기계약직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록물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노회찬 아카이브는 추모관과 교육장을 활용해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고 있다. 보존을 위한 전문장비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책장과 캐비닛, 임시보존상자를 이용해 보존하고 있다.

〈표 2〉 노회찬 아카이브 서고 현황

위치	종류	규격	수량	용도
교육장	책장	5단	9	도서류(일반)
	책장	3단	6개	도서류(특별서거)
	캐비닛(유리)	3단	1개	상패, 기념품 보관
추모관 (서재)	책장	3*5단	2개	도서류(일반)
	책장	2*6단	2개	도서류(일반)
	책장	6단	1개	도서류(일반)
	책장	3단	4개	도서류(저서, 추천도서)
	불박이장	3*3단	1개	박물류, 비전자시청각류
서고	책장	3*5단	4개	도서류(한국진보정당, 사회과학서적)
	책장	2*6단	1개	도서류(감옥반입서적, 간행물류)
	책장	6단	3개	문서류(의정활동기록)
	책장	3단	3개	문서류(의정활동기록)
	책장	4단	1개	문서류(의정활동기록)
	공간박스	2칸	5개	문서류(의정활동기록)
창고	철제랙	4단	5개	재단 업무기록 보존

또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공간의 이전 문제이다. 현재 노회찬 재단은 독립적인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공간이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있고 아

카이브 공간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보유 기록에 대한 정리와 목록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실물기록의 정리체계를 갖추고 이전에 대비해야 한다.

## 2) 영역별 특징

노회찬 기록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록의 생산배경과 시기에 따라 사적 영역의 기록과 공적 영역의 기록, 사후 기록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사후 기록은 서거 이후 노회찬재단 및 노회찬을 추모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생산한 것이 명확하나 사적 영역의 기록과 공적 영역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영역별 구분은 기초 연구 단계에서 기록과 기록의 생산 시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임의적인 구분이다. 생산 당시 가족, 친구, 개인사와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는 사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사적 영역의 기록이라 보고 학교, 조직, 단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 역할을 수행한 기록을 공적 영역의 기록이라 구분하지만 아카이브를 통해 연구되고 분류되고 서비스되어 기록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없는 사회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노회찬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적 기록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 역시 이 연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설정들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의미들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노회찬의 생애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회찬의 생애에 대해서는 노회찬재단 홈페이지 ‘노회찬의 삶’에 정리가 잘되어 있다. 이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도서 〈정운영이 만난 우리 시대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정운영, 2004)〉, 온라인매체 〈퍼스웹(퍼스웹, 2004)〉 등 다양한 인터뷰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과 맥락을 덧붙일 수 있다.

노회찬은 1956년 부산에서 출생,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고 서울 경기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서울로 유학을 와 이후 서울,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1972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사건이 있던 해였다. 이후 고등학교 입학 후 학내 학생운동을 주도하며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고려대 정외과 입학 후에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며 노동운동을 준비하고 졸업 후 노동운동 현장에 취업하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했다. 1987년 2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살인·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투쟁위원회(약칭 타투)’와 6월 항쟁 기간 중 인천 지역에서 결성된 인민노련은 노회찬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조직이다.

노동운동과 인민노련 결성 등을 이유로 7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고 수배생활 중 노동운동 현장에서 만난 김지선과 결혼한다. 인민노련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2년 4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노동자 중심의 합법정당운동을 이끌었다.

노회찬은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며 부대표, 서울시당 위원장,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이끌며 TV토론에 출연, 다양한 어록을 남기며 진보정치인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된다.

삼성이 검찰 주요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리해왔다는 음성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가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는 등 진보정당 대표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노원에서 출마했던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홍정욱 후보에게 석패하였으나 노원 지역 정치활동조직인 ‘노회찬마들연구소’를 설립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정치인으로서 자

리매김하게 된다. 노회찬마들연구소, 약칭 마들연구소는 노원 지역을 중심으로 1.정책연구사업 2.교육문화사업 3.지역사업 4.각종 포럼사업 5. 홍보 출판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정치활동조직이다.

노회찬은 2016년 4월 있을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몸 바치겠다”고 외쳤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노회찬은 2016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정의당 원내대표였으며, 2018년 4월 결성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정의 의원모임’의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 교섭단체의 조건인 20인 이상의 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수정당들에게 취약했던 구조를 군소정당 정치연합을 통해 뛰어넘고자 했던 시도를 하는 등 국회의원이 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계를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했다.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8년 7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회찬의 가족이나 동료들은 모두 그의 모든 시간은 공적인 일로만 채워졌다고 말한다. 2차 이관 당시 유가족인 아내 김지선 노회찬재단 전 이사는 늘 진보정당 일로 바빴던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조차도 관련 책을 읽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 속에서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개인의 삶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노회찬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사회 속에서 느낀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고자 했고, 실제로 그 결과는 사회의 변화로 나타났다. 80년대 민주화운동시기 노동자들의 세력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꿈꿨고,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을 세상에 드러냈다. 마침내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꿈의 절반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던 그때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의정활동을 했던 7년간 그는 법률안 945건을 포함, 모두 1029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이 가

운데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만 따지자면 127건(법률안 119건 포함)을 발의해 7건(대안반영 폐기 제외)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주제 폐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굵직한 진보적 의제들이 그의 손을 거쳐 오늘의 현실이 됐다(한겨레, 2018).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조직에 소속되거나 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한 것을 한 개인의 공적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 의정활동 시기의 기록을 공적영역의 기록이라 구분한다.

〈표 3〉 노회찬 생애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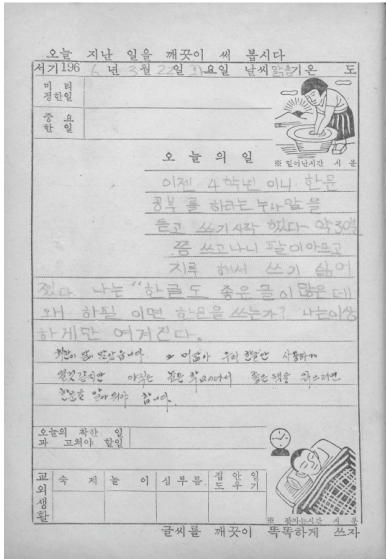
시기 구분	주요 활동(상세 시기)
유년시절 기록	미취학 시기
청소년기 기록	초등, 중등, 고등학교 시기
청년기 기록	군복무 시기, 고려대 재학 시기,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 시기, 노동운동시기, 수배시기, 결혼, 수감생활 기록
중장년기 기록	진보정당활동
사후 기록	추모 기록, 노회찬재단 활동 기록

### (1) 사적 영역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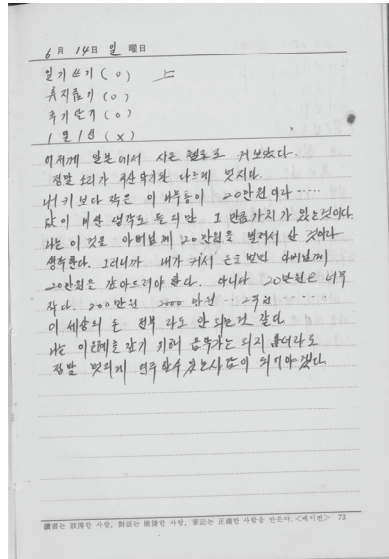
사적 영역의 기록은 본인과 가족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한 것으로 사진, 일기, 편지, 메모, 책과 소장품, 기념품, 선물 등의 박물관 등을 포함한다.

돌사진, 6살 생일에 어머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 초중고교시절 일기, 고교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위해 용돈을 아껴 사 모았던 ‘씨알의 소리’ 등의 잡지 등과 개인적인 기록부터 수감생활 동안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 등이다.

〈그림 2〉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일기(1966.3.22.)



〈그림 3〉 중학교 2학년 당시 일기(1970.6.14.)



〈그림 2〉의 기록은 초등학교 일기와 중학교 일기이다. 일기에는 여느 학생들처럼 숙제한 이야기, 친구들과 놀러갔던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간첩 김신조(초등학생인 노회찬은 ‘김신주’로 알았음)가 자수하는 모습을 TV로 본 이야기처럼 당시 사건을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본 기록도 있다. 당시 TV 보급률이 10% 내외였던 것을 감안할 때<sup>2)</sup>, 집에서 TV를 볼 수 있었던 경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중2 때 첼로를 선물 받아 레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경제상황 뿐 아니라 부모님의 문화적 소양과 지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노회찬의 부모님은 매우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아이들에게 각각 악기 하나씩을 배우게 하는 등 문화적인

2)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 텔레비전 보급률이 1967년 6.1%, 1968년 7.6%, 1969년 15.7%로 당시 부산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data.si.re.kr/node/376>)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 분들임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감시기의 마지막 편지에서 노회찬은 아들이 더 이상 노동운동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장남으로서의 고민, 그럼에도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결심을 보인다. 출소 이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 건설에 매진한 것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아켜볼 때 보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점들이 반성되고 부모님을 보다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제가 다짐한대로 正道만은 곧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직업과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에서 돌아온 아들을 불을 끄고 글씨를 쓰게 한 후 아직 멀었다며 바로 쫓아낸 한석봉의 어머님처럼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으나 이 나라와 민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의 이해와 격려는 제가 이 세상에서 뜻을 펴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면서 또 저의 직분을 다하는데 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猛將 아래 弱卒 없듯이 강한 부모 밑에 약한 자식 없을 것입니다. 보다 강하게 이 험한 세파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감옥편지 1992.03.25. 중 일부내용).”

노회찬의 사적 영역의 기록은 노회찬의 가족관계, 가족 사이의 일들, 취미와 고민, 생각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인 동시에 기록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록이기도 하다. 사적 기록은 생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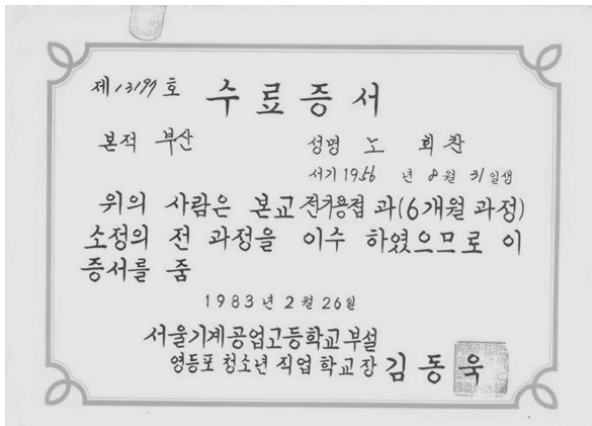
연구를 기반으로 시기 구분을 적용하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맥락정보, 즉 전거정보로 구축해 기록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공적 영역의 기록

공적 영역의 기록이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적인 조직에 속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록물이다.

노회찬의 공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소속되었던 조직들을 이해해야 한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시기부터 노회찬은 노동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인천에 있던 현대정공 하청 회사에서 아주 초보적인 운동을 하던 노회찬은 1982년 가을 서울기계공고 부설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현 서울산업정보학교)에 들어가 용접기술을 배운다. 6개월 후인 1983년 2월 26일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딴다.

〈그림 4〉 영등포 청소년 직업학교 전기용접과 수료증서



용접공으로서 노회찬은 대림보일러, 부천 철도차량 제작 회사, 현대 철구 등의 회사에 취업해 일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났다. 현장노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활동가로 변화시키는 일, 활동가들의 모임, 지역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을 하다가 1985년 이후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학생운동가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서클 형태의 조직활동을 넘어서 노동운동가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지역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주변 지역인 부평, 부천 지역의 정치 서클과 연계하여 정치조직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유경순, 2015b, 115-116).

이처럼 노회찬의 노동운동기록은 1980년대 당시 학생운동가들이 대거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과정과 맞물려 있다. 1972년 유신이 노회찬을 고교 학생운동으로 이끌었다면 1980년 광주민주항쟁은 학생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민중에 의한 변혁운동으로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출 노동운동가들의 구술 작업을 진행한 유경순은 “광주민주항쟁은 학생운동의 반성과 성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광주에서 권력에 의해 벌어진 ‘야만적 학살’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 민중들에 대한 책임감 등이 그 원천이었다. (중략). 결과적으로 광주만이 고립된 채 군부에 저항했기 때문에 학생운동 세력은 자신들의 한계와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광주항쟁을 계기로 1980년 초반 학생운동조직들은 학생운동의 위상과 이후 투쟁의 방향 등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1984년 이후에는 ‘민중과의 실천적 연계를 지향하는 민중지원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범주를 설정하고 노학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유경순, 2017, 177). 1984년 9월 청계노조 투쟁을 계기로 민중지원을 넘어 노동현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군복무 후 또래들보다 늦게 대학에 입학해 79학번이 된 노회찬이 당시 학생운동논쟁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 전기용접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1983년 2월)은 시기적으로는 학생운동의 논쟁이 정

리되기 바로 직전의 일로, 이미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던 노회찬은 1986년 5월 인천(주안), 부평, 부천 지역 통합, 비공개 정치조직인 인천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투쟁동맹)을 결성한다. 1987년 1월 15일에는 투쟁조직, 공개적 투쟁기구인 살인·강간·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노동자투쟁위원회(타투)를 결성하고 2월 7일 박종철 추모 집회 때 부천역 광장에서 대중투쟁을 성공시키며 6월에는 인민노련을 결성한다. 인민노련은 투쟁동맹과 NL 세력 결합. 정치적 노동운동을 위한 정치적대중조직(PMO 지향)이다(유경순, 2015b, 121)

인민노련은 강령에서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고,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정치무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김진국 외, 1991, 168).

인민노련 결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고 2년 4개월의 형을 살고 1992년 4월 1일 출소한 후부터는 본격적인 진보정당 활동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4월 15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약칭 진정추)를 결성하고 진보정당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92년 대선에서 진정추는 백기완 선본에 결합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에 뛰어든다. 1995년에 진정추는 민중정치연합과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약칭 진정련)을 결성하였고 노회찬은 진정련의 대표를 역임한다. 1997년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계와 진보운동권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등과 함께 건설국민승리21(약칭 국민승리21) 창당하고 부대표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비례 9명 포함)이 당선되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으며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노선 갈등 속에서 민중 민주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탈당해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하면서 진보정당계열은 두 정당으로 나뉘지게 된다. 이때 노회찬은 심상정, 조승수와 진보신당에 합류한다. 2011년에는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갈라져 있던 진보정당의 대통합을 위해 노회찬과 심상정은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민주노동당 주류와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게 된다. 노선갈등이 있었던 민주노동당 주류(이른바 NL계열)나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참여당과 손잡을 수 없었던 진보신당 잔류파는 19대 총선에서 사회당과 합당하여 선거를 치렀으나 정당투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고 이후 진보신당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한다. 이후 2013년 7월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노회찬, 심상정이 합류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총 13석을 확보하며 제3당의 입지를 다지지만 중앙위원회 폭력사건(2012년 5월 12일), 부정선거 관련 '이석기, 김재연 제명부결' 등 노선갈등이 계속되면서 비상대책위에 참여해 당 개혁을 추진하던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등은 2012년 9월 '새진보정당추진회의'를 결성하여 통합진보당과 결별하며 10월 진보정의당을 창당한다.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 된 후 민족 해방 계열(NL)은 2016년 민중연합당을 창당하여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민중당을 거쳐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회찬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순간에 그 곳에 있었다.

노회찬과 진보정당의 흐름은 그의 당적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당직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임시직 또는 특별직 형태의 당직도 상당히 많다.

〈표 4〉 노회찬의 당적 변화(노회찬 상세연보 참조)

시기	당명	당직	비고
1987.06.26.~ 1989.12.23	인민노련	조직부장	
1992.04.15.~ 1995.09.2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	1992년 대선 당시 백선본 조직위원 장
1994.09.24.~ 1997.08.	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1997.11.26.~ 1999.11.15.	건설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	
2000.01.30.~ 2008.3.07.	민주노동당	부대표 2002 선대본부장 2004 중앙선대본부장 국회의원(17대)	*2000년 총선 결과로 민주노동당은 등록 취소되었다가(2000.04.18.) 재 창당함
2008.03.16.~ 2011.09.23.	진보신당	공동대표 상임고문	탈당 후 '새진보정치연대' 조직.
2011.12.06.~ 2012.09.13.	통합진보당	당 대변인 국회의원(19대)	새진보정치연대, 국민참여당, 민주노 동당이 합당하여 통합진보당 창당
2012.10.07.~ 2013.07.21.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013 혁신전당대회에서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2012.07.21.~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20대)	

노회찬의 공적 영역의 기록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정활동기록이다. 노회찬 서거 후 재단으로 이관된 의정활동기록은 기록물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서류와 도서, 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의정활동기록은 노회찬이 국회의 구성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노회찬은 17대(비례대표), 19대(노원), 20대(창원성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나 17대의 경우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과 동시에 자격이 박탈되는데 2008년 3월 7일 탈당하면서 임기를 약 한 달 남겨두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한 19대 때에는 2005년 삼성 X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3년 2월 14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1년도 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0대 때에는 2016년 4월 당선되어 2018년 7월 서



추모메시지는 현재 위 사진과 같이 메시지가 잘 보일 수 있게 겹쳐 지지 않도록 한 장씩 붙여서 중성비닐로 싸서 보관하고 있다. 1주기 추모기간 동안 운영된 추모전시관을 통해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전시되었다. 추모편지의 경우 디지털화해서 실물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추모편지 역시 1주기 추모전시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1주기와 2주기 추모전시는 아카이브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으로, 추모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전시를 진행했다. 1주기 추모전시관은 ‘추모의 기억들’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추모 편지와 메시지, 선물 등을 전시하였고 2주기 추모전시관은 ‘2020 노회찬을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노회찬의 생애 주요한 순간들의 기록들을 전시하였고 생전 즐겨보고 추천했던 책과 영화들도 소개하였고 추모 방명록을 운영하였다.

〈그림 6〉 2주기 온라인추모 전시관



시민들의 추모메시지 기록은 비전자기록과 전자기록이 혼합되어 있고, 생산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웹기록은 이를 획득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사후 기록은 생산자가 다양하고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록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 3. 노회찬 아카이브 운영의 방향과 과제

#### 1) 기록물 정리와 디지털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회찬 아카이브의 기록물은 양이 많고 유형이 다양하며 특히 실물기록의 비중도 높아서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이 많다. 실물기록의 경우 1960년부터 1980년대 기록의 경우 보존처리를 하지 않아 기록물이 훼손된 것들이 있어 훼손을 막기 위한 처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보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물 기록은 최대한 밀폐된 보존상자에 넣어 따로 보관하고 열람 등은 디지털화된 기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비전자 영상 기록의 경우 1차적으로 디지털화를 완료하였으나 서비스를 하기엔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존용과는 별도로 리사이징하거나 내용을 편집한 서비스본이 제작되어야 한다.

기록물 정리와 기술을 위해서는 노회찬 아카이브만의 기술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의정활동기록물 정리 작업 중 활용되는 기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 노회찬 아카이브 의정활동기록물 건 기술 요소

항목	설명
연번	관리번호
임시서기번호	서가 책장별 부여 번호 (서가 우측부터 부여함)
철명	기록물철의 제목
기록계층	철/건으로 구분
건명 ; 제목	기록물건의 제목
내용	기록물건의 상세한 내용
생산일자	기록물건의 생산된 날짜
국회	노회찬 의정활동 시기에 부합하는 국회 '대' 기입 ex) 19대(국회)
분량	복사 기준으로 기록물건의 쪽수
언어	언어 구분 ex) 한국어, 일본어, 영어
기록종류	문서류/도서간행물류/사진그림류/박물류
기록유형	기록종류의 하위형태로 세분화하여 작성 ex) 참고자료, 대외서신, 보도자료, 질의서, 기사스크랩 등
구분	기록생산의 소속, 업무관련 자료로 구분한 칸
주제	기록의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을 나열
주기	특이사항 및 자료 특징
상태	기록물건의 물리적인 상태를 '상/중/하'로 기입
개인정보포함여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O'로 작성
연관성	기록물건의 연관성으로 연번으로 작성
작업일	작업한 일자리를 작성 '0000-00-00'

## 2) 분류체계 구축

노회찬 기록의 특징을 바탕으로 노회찬 아카이브의 분류체계는 다양한 유형, 출처, 시기와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다중분류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유형별 보유 현황과 내용적 특징을 고려하여 시기분류, 유형별 분류, 주제 분류, 출처분류 등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기분류는 생애 분석을 토대로 청년기까지의 시기는 생애 전환기를 고려하여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분류하고 이후 시기는 공적 영역의 활동을 고려해 노동운동시기, 노동정치조직 시기(인민노련 시기), 수감기, 진보정당운동 1기, 진보정당 2기, 그리고 사후 기록이 포함되는 서

거이후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진보정당운동 1기와 2기를 구분하는 것은 정당에 있어 중요한 국회의정활동의 유무에 따라 정당 활동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민주노동당 시기를 이전 시기와 구분하여 진보정당운동 2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보았다.

〈표 6〉 노회찬 아카이브 시기 분류와 설명

시기	연도	설명
유년기	1956년 8월 ~ 1969년 2월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청소년기	1969년 3월 ~ 1977년 2월	중,고등학교 시기. 고등학교 재수시기 포함
청년기	1977년 3월 ~ 1983년 2월	대입 재수 시기부터 대학교 졸업까지의 시기. 군복무 시기 포함.
노동운동시기	1987년 6월 ~ 1989년 12월	노동현장활동 ~ 인민노련 이전
수감기	1989년 12월 23일 ~ 1992년 4월 1일	체포 이후 만기출소까지의 시기. 서울구치소 수감 : 1990년 1월 11일 안양교도소 이감 : 1990년 8월 8일 청주교도소 이감 : 1990년 11월 15일
진보정당운동 1기	1992년 4월 ~ 2000년 1월	진정추, 진보정치연합, 국민승리21 시기로 민주노동당 창당 전까지의 시기
진보정당운동 2기	2000년 1월 ~ 2018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서거까지의 시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정의당 시기를 포함.
서거 이후	2018년 7월 23일 ~	추도식 이후, 노회찬재단의 계승

유형분류는 문서류, 사진그림류, 영상음성류, 도서관행물류, 박물관, 신문류, 웹기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제분류는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하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공적 영역의 기록을 연구를 통해 노회찬이 지향한 삶과 사회의 상을 주제어로 도출할 수 있다. 주제어는 삼성 X파일이나 세월호 참사 등 사건명으로 할 수도 있고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

다. 노회찬의 좌우명인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은 노회찬이 지향한 삶의 모습, 즉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문구이다. 이를 사적 영역의 기록물에 대입해서 활용하면 자유인은 즐겨하고 좋아했던 낚시, 여행 등의 주제를 포괄할 수 있다. 문화인은 노회찬의 문화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주제로 미술, 음악, 건축, 체육, 미식 등 문화 영역의 기록물을 묶을 수 있는 주제이다. 평화인은 실향민의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평소 남북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반영해 북한이나 반전 평화 등의 주제를 묶을 수 있는 주제어이다.

노회찬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주제는 공적 영역에서 보여지는 선거기록이나 연설문, 저서, 인터뷰 기록을 연구해 주제어를 도출할 수 있다. 그가 자주 썼던 표현인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3가지를 큰 주제어로 설정해 평등한 나라에는 ‘6411버스(이름 없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주제어)’, ‘차별금지(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공정한 나라 주제어에는 ‘삼성X파일(재벌 문제)’,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을 평화로운 나라 주제어에는 ‘통일’, ‘외교’, ‘국방’, ‘국제연대, 국제협력’ 등의 주제어를 배치할 수 있다. 주제 분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정활동기록의 경우 주제 분류의 하나로 설정하여 국회의원의 업무기능을 분석해 계층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쓰여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제 40조),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할 수 있으며(제 54조),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 61조), 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제 63조), 탄핵의결권을 가지고 있다(제 65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고려해 의정활동의 정책영역을 입법기능, 대표기능, 재정심의기능, 정부통제기능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하위에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을 설정하여 소기능의 경우 기록물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 업무기능분류표(안)을 만들었다. 기록물 입수 당시에 기록물이 철 단위로 입수되었고 관리를 위해 임시로 보존상자

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기능 단위가 보존상자 단위로 매칭되지는 않는다. 철, 건 정리를 위한 임시 정리 작업 이후 재정리할 때는 국회 대수별, 업무기능별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7〉 노회찬 아카이브 의정활동 업무기능분류표 중 일부

정착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입법기능	법률안 제출 및 법률제정	법률안 심사			
		관련위원회건의제시			
		법률안 체계/지구심사			
		법률안 접수 및 타당성 검토	법률(안)개정 요청서 처리 법안목록(정당) 의원총회 회의록 정무조정위원회 회의록 안건 관련 수집 자료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의견조율 및 초안작성	공개질의 답변서 법률(안)초안 제안설명서 법령 설명자료 주요인사명단		
		공동발의요청 및 법률안 확정	법률(안)검토보고서 법률(안)발의 서명부 법률(안)공동발의 요청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점부사유서 대표발의 결정 통보서 법률(안) 발의서		
		법률안 제/개정 연론 홍보			
		공동발의요청 접수	수확/거부 의사		
		법률안 입안/검토			
		공정회/정문회 개최	공정회	공정회 계획안	
				공정회 설명자료집 공개질의서 주요정점 설명서	
			정문회	정문회 계획안	
				정문회 설명자료집 공개질의서 주요정점 설명서	
		위원회 공정회/정문회 개최보고	공정회 개최보고 정문회 개최보고		
		조약 체결/비준동의안 처리	동의안시사		
동의(승인)안문서관리					
위원회활동	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 선임/사.보임 요청 공문			
		위원장 직무대리 지정보고 특수위원장.간사 선임보고			
	위원회의의 상황종합	위원회의의 결과요약			
		위원회의의 상황보고			
	위원회업무	안건 관련 수집 자료 안건 심사 본회의 보고 및 판단자료 제공 업무보고자료 중인 신청			
위원회 관련 연론 홍보	보도자료 및 기타				

입법기능 하위에는 법률안 제출 및 법률제정, 공청회/청문회 개최, 조약 체결/비준동의안 처리, 위원회 활동이 포함되고 대표기능 하위에는 대표활동, 청원 접수 및 처리, 헌법기관 구성 및 고위공직자 선출, 선거 및 선거 조직활동, 외교활동, 일반행정활동이 포함된다. 재정심의 기능에는 예산안심의 및 기금검사, 결산심사, 정부 중요 재정행위 동의/승인이 포함된다. 정부통제기능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탄핵소추 의결, 행정입법검토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출처 분류는 자택, 의원실, 마들연구소, 공감로그, 개인 기증(추모 작품, 메시지, 기록 등)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되어 다중분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 3)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체계 구축’ 과제는 아카이브의 서비스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기록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 외에 기록을 활용한 이야기가 서비스됨으로써 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로 하여금 아카이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아카이브 영역에서는 기록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목록을 제공하는 관리 중심의 역할을 넘어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고 아키비스트가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미(2020)의 연구는 역사아카이브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활용-재생산하는 콘텐츠의 공유지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여기서 조정미는 창조적 공유지는 “공유자원에 기반하여 지식 생산과 공유를 위한 참여자들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선순환하며 새로운 참여와 동료적 협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조정미, 2020, viii). 주현미(2020), 정영룡(2021) 등의 연구는 각각 마을과 자원봉사 현장

이라는 기록생산 현장에서의 기록 읽기를 넘어서, 기록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아카이브는 단순히 기록의 목록을 제공하고 분류체계의 형식 아래 맥락을 보여주고, 또 갤러리 형식으로 기록물을 보여주는 전시방식을 넘어서 스토리텔링과의 결합, 다차원적인 전시 등이 고려되고 또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석해 다양한 관점의 기록읽기를 고민할 때이다. 특히 비대면의 시대, 코로나시대 아카이브 전시는 온라인전시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고민해야할 때이기도 하다.

노회찬 아카이브는 자료의 특성상 기자, 정치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이브 활용도가 높아지면 기록을 활용한 2차 저작물도 다양해질 수 있고 양질의 기록물과 콘텐츠가 축적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노회찬 아카이브는 정리사업 보다도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주기 추모전시는 전형적인 갤러리형 기록전시를 탈피, 기록과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5개의 섹션은 크게 '다시 만난 노회찬의 세계'라는 주제 하에, 1-3 섹션은 학생운동을 결심하게 된 순간, 감옥에서의 매일의 순간순간, 정치인으로서 '선거'라는 중요한 순간, 기록과 이야기를 통해 '노회찬을 읽는' 방식으로 전시를 수행했다. 4, 5섹션은 책과 영화의 세계 안에서 '노회찬을 읽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시방식은 구현하는 기술 수준에 따라 때로는 답답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마치 긴 호흡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어쩌면 온라인전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회찬 2주기 추모전시는 '이용자들이 평균 2분 30초의 시간동안 머물렀다'는 이용자 분석결과를 얻었다. 사람들이 기록을 '읽었다'는 것이다. 물론 주 이용자층은 노회찬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기록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될 수 있다는 시도를 해본 것에서 노회찬 아카이브의 콘텐츠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였던 시도였다.



## 〈그림 9〉 노회찬 상세연보 제공 화면

1956
노회찬 상세연보
2018

노회찬재단은 상세연보를 통해故 노회찬 의원의 삶을 상세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故)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자료나 기억을 갖고 계신 개인 및 단체의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해주시면 검토 후  
 상세연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회찬 및 노회찬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운동의 기록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해나가고자  
 합니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안 >

검색어 입력

기간  ~

검색

중 3338개 중 3338개의 연보

년	월	일	내용
전체	전체	전체	<b>1956년 ~ 1969년 02월</b> 어린 시절
1956	01	01	<b>1956년 08월 31일</b> - 부산 동구 초량동 825에서 출생 (2남 1녀 중 장남)
1957	02	02	- 원적은 함남 평해군 고산면 구창리 96, 본관은 강희(江葦)
1958	05	05	- 어머니 원태순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 교사를 하던 중 전쟁이 터져 1.4 후퇴 때 거제도로 피난한 후 함경남도가 고향인 아버지 노인모를 만나 결혼
1960	04	04	- 혈액형은 AB형
1961	05	05	- 노회찬 이름 관련, '회'자는 힘럽이고 '찬'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시인 이찬(韃靼)에서 따왔다고 함
1963	06	06	
1964	07	07	<b>1967년 08월 31일</b> - 첫돌맞이 잔치
1966	08	08	
1967	09	09	
1969	10	10	
1970	11	11	
1972	12	12	<b>1958년</b> - 어린시절
1973	13	13	
1974	14	14	
1975	15	15	
1976	16	16	
1977	17	17	<b>1960년 04월 19일</b> - 어머니와 함께 서대문형무소, 직은외실촌 원태진(元泰珍) 면회 : "저는 4.19와 5.16날이 다 기억나요. 저는 1960년 4월 19일날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거든요. 내 나이가 8살인데. 임마 따라 외삼촌 면회 갔다가 나오려 하는데 형무소 근처에서 데모가 벌어지는 바람에 못 빠져 나와서 쫓쫓쫓던 기억이 나고요. 조 몰사 타고 부산에 왔을 때 우리 집 근처에 도지사
1978	18	18	
1979	19	19	

단순히 일자별 주요 일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노회찬의 오늘〉이라는 테마로 지나간 오늘의 기록 속에서 그 기록의 의미를 찾아보는

짧은 콘텐츠로, 상세연보 시스템과 별도로 지나간 오늘의 모든 일정을 뷰잉하도록 설계하고 그 중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 이야기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말하자면 상세연보 콘텐츠를 활용한 일간 콘텐츠이다. 그날의 콘텐츠는 아카이브에서 서비스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발행되고 있다.

또 재단의 소식지를 활용해 매일 아카이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카이브 소식은 〈New 이 달의 새로운 기록〉, 〈Now 노회찬 아카이브는 지금〉, 〈Story 노회찬 기록과 이야기〉로 구성된 것으로 아카이브 주요 소식과 이야기로 구성된 기록을 서비스하는 월간 콘텐츠이다.

노회찬 아카이브는 이외에도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시스템 역시기록과 연결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콘텐츠 이외에 회원, 전문분야 연구자 등이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그룹을 개발하고 운영해 다양한 관점의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아카이브는 향후 (아직 노회찬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다양한 관련자들의 이야기들을 모을 수 있도록 이야기 수집 사업도 기획할 예정이고, 재단이 진행하는 〈노회찬 정치학교〉 등의 교육사업에서도 기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 4. 결론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회찬 기록의 보유, 관리 현황과 기록의 영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노회찬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노회찬의 생애를 분석하고, 기록이 생산된 시기와 배

경을 고려해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사후 영역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한 인간을 온전히 사적인 영역, 온전히 공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행위는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것을 기록이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에서는 ‘사적 영역’의 기록을 식별해야만 한다. 기록의 공개 여부 때문이다. 실제로 유가족이 재단에 기록을 이관했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 예를 들면 건강검진 기록이나 은행거래 기록 등을 제외하기는 했으나 정리 하면서 이러한 기록들이 실제적으로 ‘공적 영역 기록’ 속에 섞여서 발견되기도 했다. 아카이브에서는 사적 영역의 기록이지만 공적 가치가 있는 것들, 공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록은 현재 비공개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리고 실제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한 인물에 대한 아카이브는 생산 당시 사적인 영역에서 생산된 기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사후 그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록이 모두 존재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안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러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노회찬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경우, 사적, 공적 영역의 구분보다는 그 안에서 기록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 연구를 통해서 노회찬의 생애에 걸쳐 있는 중요한 시점들, 조직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유신 시기, 민주화운동 시기, 신자유주의 시기를 지나며 노회찬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앞서 행동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아카이브는 노회찬의 그러한 삶을 드러내고 그 가치가 확장되도록 그의 삶을 보여주고, 그 삶과 연관된 시기와 조직,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 기술항목, 키워드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기록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해야 한다.

사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해 지난 1월 25일 개관하였다. 지난해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 도서류 4,000여권과 의정활동기록물 중 보도자료, 유년기 사진과 감옥 편지 등 기록물 일부와 주제별로 정리가 진행된 의정활동기록물 중 일부도 서비스 되고 있다. 개관 시 풍부한 기록물을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전체기록물의 10%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자체 컨설팅을 통해 기록물 현황과 특징 분석, 선진사례 분석, 비저닝, 아카이브 업무기능 설계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시스템 기능을 도출하였다. 기록물 등록 및 관리 기능, 검색 기능, 다중분류체계 구축 및 관리 기능, 콘텐츠 제작 및 관리 기능, 전자 관리 기능을 도출하였고 앞서 구축된 다양한 도메인을 가진 웹페이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했다.

2020년 10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오픈소스기록관리시스템(오메카), 상용시스템(문헌정보기술 아카이브센터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자체 개발의 세 가지 구축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아카이브센터의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아직 노회찬 기록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록물 정리, 디지털화 사업 등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 산적해있다. 갈 길이 멀다.

민간영역의 아카이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키비스트에게는 꽤 큰 도전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꽤 유명하지만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인물의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것은 아직 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아직 현재진행형인 그의 꿈을 이어가는 작업이다. 노회찬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의 삶과 사회운동의 궤적을 찾아가는 작업을 통해 멀리서 동경했던 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기쁨과 비슷한 희열이 있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노회찬의 활동과 기록을 제일 많이 알고 싶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어 노회찬 아카이브를 잘 구축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이 연구는 노회찬 아카이브의 구조적, 내용적 체계를 잡기 위해 노회찬의 생애와 활동을 분석하고 현재 노회찬 아카이브에 이관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아카이브 구축의 기초 작업이다. 기록물 정리와 분류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가 있고 디지털아카이브의 체계를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노회찬 기록 중 사회적,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그 사례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영역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기록도 정리,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의 과제를 확인하고 아키비스트, 기록연구자로서 다음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영역의 다양한 아카이브에서도 아카이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참고해 더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3.15. 대한민국헌법. <https://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 김남희 (2016). 알 권리와 국회의원 활동기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윤영, 안병현 (2012). 김백봉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27, 19-46
- 김진국 외 (1987).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서울: 소나무
-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노회찬재단 홈페이지 2021.3.21. <http://hcroh.org/>
- 노회찬 아카이브 2021.3.21. <https://archives.hcroh.org/hcroh/>

- 노회찬 아카이브 상세연보 2021.3.21. <http://timeline.hcroh.org/>
- 박선희 (2013).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설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초대총장 윤인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오정은 (2017). 심소 김천홍의 자료현황과 자료활용에 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7, 31-61.
- 유경순 (2011).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논문.
- 유경순 (2015a).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권: 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서울: 봄날의 박씨.
- 유경순 (2015b).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2권: 학출활동가의 삶 이야기. 서울: 봄날의 박씨.
- 유경순 (2017).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 양상과 영향: 1970년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9호, 52-96
- 이연창 (2007). 인물 기록관 구축방안 연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룡 (2021).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그리다: 아키비스트의 시선으로 그린 마음의 지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정운영 (2004). 정운영이 만난 우리 시대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조정미 (2020). 콘텐츠 창조적 공유지로서 역사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역사콘텐츠전공 박사학위논문.
- 조현연 (2009). 한국진보정당운동사. 서울: 후마니타스.
- 주현미 (2020).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 마을아카이브, 사랑과 환대의 기록.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 (2020).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 보고서 초안. 미발행 자료
- 최인혁 (2014).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논문.
- 퍼슨웹 노회찬 2021.3.15. <https://personweb.com/2004/04/01/%eb%85%b8%ed%9a%8c%ec%b0%ac/>
- 한겨레 기사(2018.07.24.) 노회찬과 함께한 ‘처음들’ … 그가 국회에 남긴 유산.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4671.html#csidx93d00b2d59ab80c8b535379d5977f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4671.html#csidx93d00b2d59ab80c8b535379d5977fef)
- 한은정 (2007). 국회의원 업무활동의 특성과 활동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논문.